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Spring 2021
Apr. 16, 2021. pp.43-47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이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액셀러레이터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경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상반기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일자리 동향,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20년 상반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투자는 줄었지만,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35.2만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적었던 것은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소벤처깅업부, 2020).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대중화된 창업생태계 속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김선우, 2015). 2020년 8월에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은 액셀러레이터의 제도가 구체화 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된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엑셀러레이터는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김용재, 2014). 액셀러레이터 지원 및 역량과 초기창업기업 성과 간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보육 및 투자지원을 받은 초기창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기업 성과와 액셀러레이터 지원간에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핵심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기업 성과,

Ⅰ. 서론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접어 들게 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가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신산업을 발굴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1).

초기창업기업은 스타트업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창업 생태계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고, 그 의미에 부합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국내 창업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정책 추진으로 인해 2000년 8,798개에서 2020년 39,511개로 증가하였고, 2019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10,643명으로 추정되며, 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2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며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 및 밀착지원을 통해 이러한 창업 초기 실패율과 리스크를 낮춤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lkh205@gmail.com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kyusooha@naver.com

으로써 창업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에 주목하고자 한다(이정우,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창업기업 성과와 액셀러레이터 지원간에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배경

2.1.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는 2020년 8월 12일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적 근거가 변경되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동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하여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손상호, 2016).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액셀러레이터는 액셀러레이터가 마련한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에 따라 초기창업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는 공정하게 선발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연결 및 투자유치를 위한 공개 데모데이로 구성된 전문보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Cohen & Hochberg, 2014).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창업기업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받을 만한 기업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hristiansen, 2009). 이에 대한 초기창업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김용재, 염수현, 2014), 투자자의 신뢰성을 증대시켜서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손상호, 2016).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창업보육센터(인큐베이터),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개인투자자(엔젤)와 비슷하다. 그러나 인큐베이터와 비교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는 점, 벤처캐피탈과 비교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 개인투자자와 비교하여 투자 후 시설지원,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인 밀착 지원 서비스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정우, 2016).

액셀러레이터는 설립 목적에 따라 투자수익 목적의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Seed Accelerator)와 대기업이 초기 창업기업과 시너지를 얻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형 액셀러레이터(Corporator Accelerator),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 목적의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지원 공공 액셀러레이터(Ecosystem Builder Accelerator)와 대학과 연구기관 및 NGO에서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있다. 이런 액셀러레이터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의 지원 목표 및 방향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김상철, 2021).

창업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역량은 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Choi, et, al., 2015), 전문성과 지원의 질적 수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액셀러레이터 기능의 확대가 제시되었다(배영임, 2016).

전양우(2020)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지니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성과 신뢰도, 재무역량이 창업기업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우(2015)는 민간 부문의 창업 붐에 부응하고, 한국의 창업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재로서 정부는 액셀러레이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오(2017)은 액셀러레이터가 기존의 창업보육기관과 투자기관과 차별성 있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지원과 투자지원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 창업기업 성장과 생태계 형성을 위해 액셀러레이터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1.1 액셀러레이터 지원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제품·서비스 아이템의 시장성이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Grimaldi and Grandi, 2005).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액셀러레이터 지원에는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가 해당된다. 그 밖에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컨설팅 전문가 상담 지원,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의 변형된 형태로 종종 혼용되어 사용하기는 하지만 경쟁적 선발과정, 짧은 진행기간, 소액투자 및 전문 초기 육성 프로그램 등에 있어 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중빈, 2019).

액셀러레이터는 기존 창업지원체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새로운 역할, 즉 초기투자와 전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소액을 투자하고 전략, 팀 세팅, 마케팅, 법률, 재무 등 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모델이다(고병기 2020).

박남규(2015)의 연구에서는 초기창업기업 지원을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지원으로 보았으며, 유상정(2016)은 자금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으로 분류하였고, 김종식(2017)의 연구에서는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액셀러레이터는 경험 많은 전문가에 의해 3개월 이상 체계적인 밀착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실패를 최소하며, 시드투자를 통한 자금지원뿐 만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후속투자 연계까지도 지원하게 된다(김경수 2019).

이러한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김진한 외, 2020),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Hallen et al., 2019).

초기 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익보다 개별화 효익, 심리적 효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 서비스가 초기 창업기업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라는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최중빈, 2019).

Bruno(1998)는 경영, 사업계획, 법적지원, 마케팅, 컨설팅 교육, 종업원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영지원은 멘토링 및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험이 많은 벤처창업가들을 활용하여 기술 및 경영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오종열 2017).

멘토링 지원은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멘토가 멘티와 연결되어 멘티의 창업활동이나 경력개발과 관련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멘토가 터득한 지식이나 기술, 지혜와 경험을 멘티에게 신뢰성 있게 전달하고 후원하며(조한준 외, 2020), 창업기업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Kram, 1983).

마케팅 지원은 시제품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하여 사업아이템에 대한 사업타당성분석, 판로지원 등으로 창업자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성장기반을 제공한다(박남규, 2015).

네트워크 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개인 및 개인 또는 개인과 기관을 연결하여 하는 것으로(Cohen & Hochberg, 2014),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김상철, 2021). 이는 성공한 창업자나 대기업 임원을 만나 그들의 위기극복 경험 등이 사업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데모데이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을 직접 접촉을 통해 투자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제시하였다(김상철, 2021).

창업기업은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기업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투자금을 지불하는 초기투자(Bound & Miller, 2011)와 타 투자자를 연계하는 후속투자(Hallen et al., 20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용석(2018)은 초기 창업기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 연구에서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를 중시하며 자금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다.

Bound & Miller(2011)는 자금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창업기업의 초기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금지원,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이라는 3가지 항목을 액셀러레이터 지원 유형으로 도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1.2. 액셀러레이터 역량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과 창업기업 투자에 내외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창업에 필요한 유·무형 자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다(김용재·염수현, 2014).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지원법'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액셀러레이터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은 궁극적으로 초기 창업기업에 Seed투자를 한 지분을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회수하는 것이다(신진오, 2017). 전양우(2020)는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지니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성과 신뢰도, 재무역량이 창업기업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 투자의 전문적인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역량으로 전문적인 지식차원의 역량으로 기업운영관리 지식과 행정관리 지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정해주, 2005), 창업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지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배

영임, 2016). 이는 우리나라가 보육 인력에 대한 처우와 고용형태가 전문성 있는 지원이 힘든 구조이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배영임, 2016).

허주연(2020)은 타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가 더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는 타 액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및 교육, 투자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몰입과 만족이 높아지고, 신뢰가 높을수록 만족이 높아지고, 몰입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최중빈, 2019)

Park & Ha(2014)는 창업 관련 전문지식의 보유 및 보육경험 등의 역량은 창업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역량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기업은 액셀러레이터의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권용석, 2019), 높은 명성을 가진 액셀러레이터는 신뢰성을 얻기 쉬우며, 창업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전양우, 2020).

2.2. 초기 창업기업 성과

초기창업기업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며, 보통 혁신적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수익·고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라고도 부른다(고병기, 2020).

창업성과는 창업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창출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Burke & Litwin, 1992),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Venkatraman & Ramanujam, 1987).

초기 창업기업 성과는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데 시간차이가 있어 재무적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Tsai, et al., 1991).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측정을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한다(Covin & Slevin, 1990).

본 연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김창봉·이승현, 2017), 목표 및 비전 달성도, 성장 잠재력, 성과 만족도(이윤재, 2006)로 성과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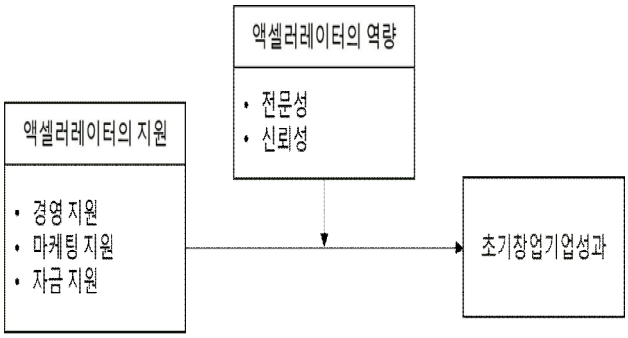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그러나 본 연구진은 금융기관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은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금융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액셀러레이터 지원 및 역량이 초기창업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지원과 역량이 선행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액셀러레이터 지원과 역량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액셀러레이터 지원(경영 지원, 마케팅 지원, 자금 지원)이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있어 액셀러레이터 역량(신뢰성, 전문성)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조절 효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상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바는, 액셀러레이터의 지원과 역량이 초기 창업기업 성과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병기(2020). *액셀러레이터 관계 효익이 스타트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회 역량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권용석·황보윤·이종훈.(2019).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33-46.

김경수(2019). *창업가역량이 액셀러레이터의 멘토링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연구 : 신용보증기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상철·동학림 (2021).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과 창업가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 319-348.

김선우(2015). 창업생태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과학기술정책*, 25(6), 20-25.

김용재·염수현(2014).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이해와 정책방향. *KISDI Premium Report*, 19.

김진한·조진형·이세재(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역량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3(1), 132-142.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배영임(201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와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145-155.

손상호(2016). 엑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의 활성화. *주간금융브리프*, 25(20), 8-9.

신진오(2017).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벤처대학원.

심용호·송민경·김서균(2018). ICT 분야 창업자 특성에 따른 기업성과 상관관계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1(2), 615-635.

오종열(2017). 정부의 금융, 경영, 기술지원 등 창업인프라 지원제도가 문화컨텐츠 전공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7), 407-414.

이정우(2016).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Entrepreneurship Korea*, 1, 7-10

조한준·최대수·성창수(2020).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2), 81-96.

최중빈(2019). 엑셀러레이터의 관계효익이 서비스 관계의 질과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4, 1-27.

Burke, W. W., & Litwin, G. H.(1992). A causal model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hange. *Journal of management*, 18(3), 523-545.

Cohen, S., &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Grimaldi, R., & Grandi, A.(2005). Business incubators and new venture creation: an assessment of incubating models. *Technovation*, 25(2), 111-121.

Hallen, B. L., Cohen, S. L., & Bingham, C. B.(2020). Do accelerators work? If so, how?. *Organization Science*, 31(2), 378-414.

Hellmann, T., & Puri, M.(2000). The interaction between product market and financing strategy: The role of venture capital.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3(4), 959-984.

Kram, K. E.(1983).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Miller, P., & Bound, K.(2011), "*The startup factories*", NESTA, http://www.nesta.org.uk/library/documents/StartupFactories, pdf

Park, D. Y. & Ha, K. S.(2014). Performance of Business 15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2 Incubator According to Operating System and Manager Characterist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 7118-7133.

Venkatraman, N., & Ramanujam, V.(1987). Measurement of business economic performance: an examination of method convergence. *Journal of management*, 13(1), 109-122.